

-(으)ㄴ 대로

~할 대로 ~하다 — 더할 수 없을 만큼

같은 동사를 이 어미를 사이에 두고 두 번 써서 어떤 상태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.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도록 익혀 둘 고정 형태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핵심 패턴	-(으)ㄴ 대로 + 같은 동사	지칠 대로 지치다
자음으로 끝남	-을 대로	굳다 → 굳을 대로 굳다
ㄹ로 끝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멀다 → 멀 대로 멀다
관용 표현	될 대로 되다	될 대로 되라
관용 표현	갈 대로 가다	갈 데까지 감
다른 구문	-는 대로	아는 대로 말하세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되고, 대로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 특징적인 부분은 뒤에 오는 말입니다: 같은 동사를 한 번 더 씁니다.

형태는 지칠 대로 지치다입니다 — 지칠 수 있는 한계까지 지쳤다는 뜻입니다. 반복이 강도를 나타냅니다.

나타내는 상태는 거의 언제나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: 지치다, 상하다, 늙다, 굳다, 망가지다. 무언가가 갈 데까지 갔는데, 좋은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.

두 관용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: 될 대로 되다(될 대로 되라,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)와 갈 대로 가다(일이 너무 지나치게 되었다).

■ 예문

- 1 그는 지칠 대로 지쳐 말도 못 했다.
- 2 관계가 이미 갈 대로 간 상태였다.
- 3 시멘트가 굳을 대로 굳어 손댈 수 없었다.
- 4 이제는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입니다.
- 5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쳐 결국 돌아섰어요.
- 6 인심이 각박해질 대로 각박해졌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대로

같은 명사지만 구문이 다릅니다. -는 대로는 ‘~와 같이, ~에 따라’라는 뜻이며 반복하지 않고, -(으)ㄴ 대로는 동사를 겹쳐 극단을 나타냅니다.

아는 대로 말하세요. (아는 그대로) / 지칠 대로 지쳤다. (완전히 지쳤다)

-다 못해

-다 못해는 어떤 성질이 넘쳐 다른 상태로 넘어갔다는 뜻이고, -(으)ㄴ 대로는 그 성질 안에서 갈 수 있는 끝까지 갔다는 뜻입니다.

하얗다 못해 푸르렀다. (너무 하얗서 푸른빛이 돌았다) / 굳을 대로 굳었다. (더할 수 없이 굳었다)

-(으)ㄴ 지경이다

지경이라는 한계 직전에 있다는 뜻이고, -(으)ㄴ 대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.

쓰러질 지경이다. (곧 쓰러질 것 같다) / 지칠 대로 지쳤다. (이미 다 지쳤다)

■ 주의

✗ 그는 지칠 대로 힘들었다.

○ 그는 지칠 대로 지쳤다.

이 구문은 양쪽에 같은 동사가 필요합니다. 다른 동사를 쓰면 패턴이 깨집니다.

✗ 기분이 좋을 대로 좋았다.

○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.

이 패턴은 한계까지 나빠진 상태를 나타냅니다. 좋은 일에는 긍정적인 강조 표현이 어울립니다.

✗ 아는 대로 아세요.

○ 아는 대로 말하세요.

-는 대로는 ‘~에 따라’라는 별개의 구문이며 반복하지 않습니다.